

전공자유선택제로 입학한 대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박금주*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e-mail:12171176@dankook.ac.kr

Curriculum Design for University Students Entrusted with Major Self-Governing System

Geum-Ju Park*

*Liberal Arts College, Dankook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전공자유선택제를 통해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대상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하게 되는 학생들을 위해 2024년 초를 전후로 각 대학은 입시 계획을 수립하고 학사제도를 수정, 보완하고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 A대학도 학사 유연화 TF팀을 꾸려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하고 교육과정을 개편하였다. 국내외 대학의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은 도출하였으나 실제 학사운영과 교육과정 설계에 적절히 적용하지 못했다. 전공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감 없이 1학년을 교양과목만 수강하면서 지내다 2학년 진입 시 전공을 선택하는 시점에서 원하는 전공에 편입되지 못한다면 중도탈락 사례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적성과 흥미를 고려해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공 경험을 제공하고 스스로 학기를 설계해 보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갖게 한다면 전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전공자유선택제는 학생들이 대학 입학 후 체계적인 지원하에서 각자 흥미,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이다. 전공자유선택제 1유형은 전체 전공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형, 2유형은 계열별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입학단계에서는 자유전공(무전공)으로 모집하고 재학단계에서는 전과, 복수 전공 등 재학 중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확대, 전공·진로 탐색 및 선택 지원체계 구축, 성공적 미래 준비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비교과 활동 등 지원, 융합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기초소양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전공자유선택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대학 입학 전, 꿈과 전공을 정하지 못한 학생, 대학 입학 후, 꿈과 전공이 달라 다른 전공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학생,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며 융합역량을 키우고 싶은 학생이 있다[1]. 진로탐색이 필요한 학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해 1학년 기간에 다양한 경험을 하고 교과를 수강하면서 진로와 전공을 탐색하는 시간을 갖고 2학년에 진급하면서 전공을 선

택하게 된다.

2025학년도부터 전공자유선택제가 교육부 주도로 도입이 되면서 각 대학은 전공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사지도, 전공과 진로를 탐색해 볼 수 있는 교과 개설 등 학사운영과 교육과정에 변화를 주고 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그에 따른 준비가 병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각 대학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공자유선택제를 처음 도입하는 대학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고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2. 타대학 전공자유선택제 적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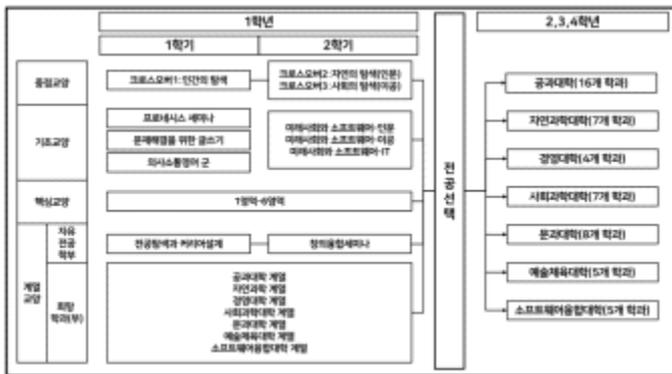
타대학 전공자유선택제 적용 사례는 2025학년도 이전에 전공자유선택제를 적용하여 신입생을 선발한 대학과 2025학년도 첫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하대학교는 2023학년도 입시를 통해 자유전공학부 70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합리적인 전공 선택을 위한 전공탐색 지도교수제를 운영하여 희망 계열별 지도교수 배정을 통한

교수-학생 멘토링, 입학에서 전공배정까지 지속적 진로상담을 통한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제고, 수평적 관계형성을 통한 밀착형 학사지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전공 탐색과 결정을 위한 교과는 커리어 교과목인 ‘전공탐색과 커리어 설계’를 운영하고 학내 다양한 전공 교수를 초빙하여 전공 및 향후 진로에 대한 정보를 공유, 학생주도 활동을 통한 전공/진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자기주도적 학습활동 촉진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융합 교과목 <창의융합세미나>를 편성, 운영한다. 대학 적응력 강화를 위한 FYE(First Year Experience)비전 캠프 운영,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고취를 독려한다. 교육과정은 [그림 1] 과 같다. 교과 영역은 중점교양, 기초교양, 핵심교양, 계열교양으로 구분되어 있다. 중점교양에서는 인간의 탐색, 자연의 탐색, 사회의 탐색을 주제로 한 교과를 이수하고 기초교양에서는 프로네시스 세미나, 문제해결을 위한 글쓰기, 의사소통영어, 미래와 소프트웨어를 수강한다. 핵심교양은 1에서 6영역의 교과를 수강하고 계열교양으로 전공탐색과 커리어설계, 창의융합세미나, 희망하는 학과(부)의 계열 교양을 수강한다[2].

없이 전공을 선택하고 선택한 학과로 소속을 변경한 후 학생 설계전공이 이수 가능하다.

직무연계 모듈형 전공교육과정을 도입하여 학생설계전공을 지원한다. 전공교육 목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교육혁신 전략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전공 변경에 유연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도입하였다. 모듈형 전공교육과정의 도입으로 학과의 틀을 벗어난 모듈 중심 교육으로 전공능력을 함양하고 학과별 직무분야 모듈 설정 후 교과목을 구성하게 된다. 모듈 단위 이수체계를 제시하고 수강과 진로지도를 강화한다. 모듈 중심 운영으로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게 되고 주기적 점검과 평가 체계를 도입한다. 운영방법은 전공관련 직무 분야별 핵심 교과목 그룹을 12학점이상으로 구성하고 총 39개학과 136개 모듈을 구성할 수 있다. 전공모듈의 유형은 일반형과 혁신형으로 나누어 일반형은 직무연계 기본 모듈로 구성하고 혁신형은 특성화 전략 모듈로 사회문제해결형, IC-PBL특화형, 창업특화형, 학과융합형, 공동교육과정형, 혁신수업형으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K-Cluture기 획전공을 설계하게 되면 글로벌문화통상학부에서 켈처크리에이티브모듈을 수강하고 광고홍보학과에서 Data Analytics 모듈 수강, 경학부에서 마케팅 모듈, 전략경영모듈을 수강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림 1] 인하대학교 교육과정 로드맵

예상되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기초과학능력이나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초과학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교양 교육 체계를 조정한다. 인기학과나 교과목에 수강이 몰릴 수 있는데 온오프라인 강의가 혼합된 강좌 개설, 다전공 강화, 소프트웨어 관련 교원을 확충한다. 자율전공, 다전공 등 학생의 수요가 다양해 지는 만큼 모듈형 전공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전과 및 다전공 인원을 확대한다. 전공 풀림현상으로 인해 일부 학과는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데 최저 수강인원을 하향시키고 융합형 전공을 확대하고자 한다. 전공 선택을 도울 수 있도록 아카데미 어드바이저, 담임교수의 상담, 학과탐색 교과목을 강화한다. 1년간 전공 소속없이 대학생활을 하게 되어 정체성 및 소속감이 결여될 수 있는데 프로젝트기반의 학습을 강화하고 여름방학 글로벌 캠퍼스 운영, 학생회 활동을 통해 학생 간, 학생-교수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한양대학교는 2025년 전공자율선택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LIONS자율전공학부를 신설하고 자율전공 전계열, 자연계열, 인문사회계열로 나누었다. 전공탐색 교과인 전공탐색과 설계를 필수로 이수하고 일부학과는 선수강 교과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2학년 진입 시 해당 학과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한양대학교는 2023년 7월 교육혁신처를 신설하고 학생과 교원 대상 토론회를 거쳐 24-27 전공교육과정을 수립하였다. 편제 개편 및 정원 조정을 논의하고 2024년 초 학장, 학생, 교원, 학과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4월엔 학칙개정, 학장 설명회, 5월엔 자율전공 전공진입 간담회, 7월엔 자율전공과 교육혁신 포럼을 개최하였다.

입학단계에서 최초합격자 전체 수업료를 2학기에 걸쳐 50% 감면해 주고 1학년 학기 중 학과 선택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담임교수 및 TA배정, 전공탐색을 위한 교과목 및 다양한 비교과 활동 운영, 학과별 담임교수와 전공설계지원센터를 통한 밀착 상담을 계획하였다. 1학년 여름방학 중에는 LIONS Global 학기를 운영하여 각 신입생에 250만원을 지원하고 계절학기 3학점으로 인정해 준다. 2학년 이후 인원제한

한양대학교는 전공자율선택제 도입을 위해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전공자율선택제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

하여 구성원 간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였다[3].

외국대학의 사례를 살펴보면, 연구중심 사립대학과 주립대학으로 나눌 수 있다. 연구중심 사립대학은 Stanford, MIT, Harvard, Columbia, Yale, 주립대학은 ASU(Arizona State University), UT Austin(University of Texas, Austin), U Wisconsin(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UC Berkeley(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W(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의 예이다[4].

Stanford University는 2학년 말에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데 글쓰기를 학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1학년은 설명과 논리적 글쓰기, 2학년은 연구기반 글쓰기, 3-4학년은 전공글쓰기이다. 학기제가 아닌 쿼터제로 운영하고 졸업 학점은 180학점이다. 졸업학점 중 62~67학점을 교양교과에 해당하는 글쓰기, 외국어, Ways of Thinking and Doing, 일반/예술/기술사 기반의 교과를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MIT는 교양교과로 17과목, 체육과 건강영역에서 수영과 4과목, 학과 영역에서 자유선택 교과로 48~138학점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 교양교과를 강조하고 있다. 인문과학과 과학교과를 모두 강조하고 있어 2~3학년에 걸쳐 인문과학분야에서 최소 8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Columbia University는 1학년 대상 글쓰기, 세미나, 체육, 외국어,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 사고 방식 중심의 교과(6개 영역에서 각 1과목)를 수강하게 되어 있다. 교양교과가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고 경험 중심의 교과로 구성되어 있다. Harvard University는 general education, distribution, writing, 데이터 양적 추론, 외국어에서 44학점을 이수하게 되어 있다. 수월성 교육을 추구하고 있어 전공이 아닌 교과는 높은 수준의 상급 교과를 수강하게 되어 있다. Yale University는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에서 각 2개 교과씩 6개 교과를 수강하고 언어, 양적 추론, 글쓰기에서 7개 교과를 수강하게 되어 있다.

주립대학인 Arizona State University는 5개의 배분이수교과, 양적추론 2개 교과, 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교과(미국제도, 정부와 시민 참여, 글로벌 커뮤니티)3개 교과, 교책교과 1개 교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배분이수교과는 인간, 사회, 자연, 문화, 세계, 윤리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이 주제들에 대한 접근 방식은 어느 한 가지 학문분야의 접근법에 한정되지 않는 학제적 교육에 강조점을 두고 있으며 각 주제영역의 기본과 원리에 관한 근본적이고 원리적인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 영역이다. University of Texas, Austin은 문과, 이과 공통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 영국문학, 미국문학, 세계 문학 3과목 중 택1, 텍사스 주정부의 규정에 의한 교과 4개중 택2, 텍사스 주의 법 규정에 부합하는 교과 32개,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 영역의 64개, 수학영역, natural science and technology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은 상급학년의 교과 수강이 가능하고 1학년 때부터 학생 그룹을 형성해서 3개 교과를 같이 수강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다. ways of knowing, communication, Ethnic studies, Quantitative reasoning 영역에서 86학점을 이수하게 되는 2학년 말에 전공을 정하게 된다.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는 전공을 정해서 입학하는 공대에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필수교과, 문과 교과 6개 필수, 2개 교과는 상급 과목에서 수강, 작문 6 과목으로 40개 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하게 되는 문리대(College of Letters and Science)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필수교과, 양적 추론, 외국어, 생명과학 등에서 40개 교과를 이수하게 된다.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는 교양교과가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고 상급 과목을 수강하게 되어 있다. 작문, 외국어, Arts and Humanities, social science, natural sciences 영역의 교양 교과가 개설되어 있고 180학점 중 36학점 이상을 이수하게 되어 있다.

외국대학의 사례에서 연구중심대학, 주정부 요구가 강한 대학, 심화형 추구, 확산성 추구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Stanford, Columbia 대학 같은 연구중심대학, 각 주의 주립대학, 심화형 교과 이수를 강조하는 대학,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폭넓은 분야의 교과이수를 강조하는 대학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대학과의 차이점으로는 전공선택 전 이수해야 할 학점의 비율이 30% 내외로 높고 기초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으며 교양보다는 문과와 이과 구분없이 공통으로 수강해야 하는 교과가 개설되어 있다. 또한, 교양과 전공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신입생 대상 세미나는 학생 주도로 구성하고 주제를 정해 운영된다.

3. 연구방법

A대학은 2025년 전공자유선택제의 적용에 앞서 TF팀을 구성하고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에 대한 계획과 기존의 교육과정, 학사규정에 대한 수정, 보완을 진행하였다. TF팀에는 각 단과대학장, 학사팀 등의 구성원이 참여하여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2024년 10월 기준으로 6차례에 걸친 학사 및 교육과정 유연화 TF팀의 회의가 진행되었다. 국내외 대학 사례와 각 단과대학, 학사팀, 대학 본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4. 연구결과

국내 대학 사례를 참고하고 해외 대학 사례 중 전공세미나

부분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공자율선택제의 적용은 대학마다 활용 목적이 다를 수 있는데 수월성에 초점을 두는지, 대학생활적응에 초점을 두는지, 중도탈락을 방지하여 대학의 존립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 신입생 대상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수월성에 초점을 둔다면 전공세미나, 심화교과 수업을 강조하여 지식 탐구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고 대학생활적응에 초점을 둔다면 1학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 비교과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다. 대학 존립에 초점을 둔다면 상담강화, 전공탐색 강화, 전공선택의 범위 확장을 통해 중도탈락을 예방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A대학은 대학생활적응에 초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한 단과대학이 신설되었다. 유형 1, 2로 선발한 신입생 대상 교육과정은 기존 교육과정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필수교양을 18학점에서 16학점으로 줄여 진로탐색 각 1학점씩 2학기, 글쓰기, 고전읽기, 코딩, 영어 2학점씩 2학기, 서비스러닝으로 구성하였다. 기존의 진로교과를 폐지하고 영어를 2학점 축소하였다. 영역별 교양은 9학점 이상에서 12학점 이상으로 변경하였다. 교양교과는 기존 30학점 이상에서 40학점 이상으로 변경하였다. 전공과 관련해서는 학부(과) 기초 교과를 12~18학점 수강에서 12학점 수강으로 변경하였다.

유형 1로 선발한 신입생을 신설한 단과대학에 소속시키고 유형 2로 선발한 신입생은 각 해당계열 단과대학에서 관리한다. 구체적인 관리 방안으로는 진입을 희망하는 전공을 1차로 선택하고 분반 배정을 한다.

진입을 희망하는 전공을 신청하는 시기는 2학기 초로 설정하고 유형 1은 희망하는 학부(과)전공을 1개 신청하게 하고 유형 2는 희망하는 순위에 따라 전공 3개까지 신청하게 한다. 만약, 희망 전공 순위 내에서 배정이 되지 못하면 2차 시기에 신청을 하게 된다.

유형 2의 전공배정 선발기준은 모의토익점수, 학과별 선발 기준고려, 1학년 성적, 멘토링 교과 수료자, 전공진입 교과 6학점 이상 이수자로 하고 동점자 발생 시 성적장학생 선발 성적순위 산정 기준을 적용한다. 선발절차는 유형 1의 경우 인원제한 없이 신청 희망 전공을 배정하고 유형 2의 경우 모집 단위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학부(과)별 제안인원 내 희망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각 분반은 멘토링을 통해 관리하고 분반별로 1명의 멘토교수를 배치한다. 멘토교수는 진로 및 대학적응을 위한 멘토링 매뉴얼 및 상담지도서를 제공하고 멘토링 교과를 지원한다. 상담을 담당하는 교수는 학사정보 제공 및 대학생활관리, 학생의 잠재력 개발과 진로목표 수립, 학사경고자 및 부적응자에 대한 상담 및 지도, 전공탐색 지도교수 역할, 희망 계열별

전공탐색 교수 매칭의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 학내 학생 자문단을 활용해 학생멘토단을 구성하고 유형 1, 2 신입생에게 멘토링을 제공한다.

5. 결론 및 논의

A대학 전공자율선택제 대상 학생의 1학년 교육과정은 교양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공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교과는 개설하지 않았다. 또한 자기설계학과 같이 학생이 한 학기 동안 스스로 설계한 자기주도적 활동을 수행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전공 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받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자기설계학기가 필수적인 요소인데 대학 규정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기존 교육과정에 대해 수정하는 수준에서 개선이 이루어져 정해진 전공 없이 1학년을 보내야 하는 학생들의 대학생활을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교양 학점을 줄이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를 선택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과를 개설하거나 심화과정의 교과를 개설하는 등의 노력이 부족하였다. 전공을 탐색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단과대 차원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수립되지 않았다.

전공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감 없이 1학년을 교양과목만 수강하면서 지내다 2학년 진입 시 전공을 선택하는 시점에서 원하는 전공에 편입되지 못한다면 중도탈락 사례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적성과 흥미를 고려해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공 경험을 제공하고 스스로 학기를 설계해 보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갖게 한다면 전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 [2] 인하대학교, 홈페이지, <https://www.inha.ac.kr>
- [3]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전공자율선택제 포럼, 2024년 9월.
- [4]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전공자율선택제-해외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제43회 교양교육연구소 공개포럼, 2024년 5월.